

하이브리드도 ‘터보’가 대세...현대차·기아 판매 4배 ↑

작년 쏘렌토 1개→올해 코나·투싼·K8·스포티지 등 6개 최다 판매 쏘렌토...효율 높고 자동차세 등 절세 효과도

최근 일반 엔진보다 더 높은 출력을 발휘하고 배출가스도 줄일 수 있는 엔진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에도 터보 엔진 장착이 크게 늘고 있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현대차·기아의 터보 엔진 차량은 총 23만239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16만907대)보다 43.1% 늘었다.

이중 내연기관만 장착된 일반 터보 차량의 판매량은 18만1천7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한 반면 터보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4만9천167대가 팔리며 336.7% 급증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아 쏘렌토 1개 차종에 불과했던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들어 현대차 코나, 투싼, 신타페

와 기아 K8, 스포티지, 쏘렌토 등 6개 차종으로 늘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쏘렌토 터보 하이브리드다. 쏘렌토 터보 하이브리드는 올해 1-8월 2만2천684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1만1천260대)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렸다.

투싼 터보 하이브리드는 1만981대가 판매돼 내연기관 모델을 포함한 올해 투싼 전체 판매량(3만6천184대)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K8 터보 하이브리드 8천469대, 신타페 터보 하이브리드 4천101대, 코나 터보 하이브리드 1천569대 등의 순이었으며 7월 말 출시된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는 한 달여 만에 1천363대가 팔렸다.

업계에서는 터보 하이브리드가 인기



쏘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제공)

를 끄는 이유로 엔진 다운사이징(같은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을 꼽고 차량 또는 동급의 차체에 기존보다 작은

더 작은 배기량과 부품, 엔진으로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터보 엔진을 적용하

게 되면 자동차 무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진의 무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자동차세의 특성상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1.6 터보 엔진을 적용한 K8 하이브리드는 2.4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던 이전 세대 모델(K7 하이브리드)보다 배기량이 33% 줄었다. 반면 주행 성능은 최고 출력 180마력(PS), 최대 토크 27.0kgf·m로 K7(최고 출력 159마력, 최대 토크 21.0kgf·m)보다 각각 13%, 29% 향상됐다.

K8 터보 하이브리드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으로, K7 하이브리드(61만3천34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대부분 터보 엔진이 적용되는 추세”라며 “성능과 연비, 절세까지 삼박자를 갖춘 터보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한국산업 KCSI 17년 연속 1위

(고객만족도)

승차감·내마모성·신뢰도 등서 높은 점수

금호타이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1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이하 KCSI)'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 17년째 1위를 수성했다고 11일 밝혔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이용/구매 의향을 기준으로 한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타이어 부문에서 종합 순위 점수 83.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인 82.9점보다 높은 점수다.

이번 조사에서 금호타이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소종합 만족도'와 '재구매 의향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타이어 제품에 대해 '요철지역에서의 승차감(쿠션감)이 좋다', '코너링 시 미끄러지지 않는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제조 회사의 신뢰도가 높다' 등의 항목에 타사 대비 높은 점수를 줬다.

금호타이어의 제품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초 유럽 및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 자동차 전문 잡지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승용차타이어 부문 17년 연속 1위

'아우토 빌트(Auto Bild)'가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HS51이 1위에 올라 최우수(E xemplary)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또 금호타이어는 올해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독일 Red-Dot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품질(고객 요구 성능 충족), 양산품질(제조품질 균일성 관리 강화), 시장품질(신속한 고객대응 및 품질 개선)의 3대 방향을 주축으로 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명가’ 금호타이어가 KCSI 1위 타이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 제품을 연구하고 공정기술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일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연구·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수회기자

현대차·기아, 英 카바이어 ‘2022년 올해의 차’ 휩쓸었다

아이오닉5·쏘렌토 하이브리드 7인승 등 7개 부문 수상

현대차·기아가 영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카바이어’가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차는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과 아이오닉 5, i20 N 등 세 개 모델이 총 20개

수상 부문 중 6개 부문에서 최고의 신차로 선정돼 최다 수상 브랜드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기아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7인승 모델로 ‘최고의 대형 패밀리카’에 선정돼 1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디자인과 주행 감각, 실내 공간 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2년 올해의 차를 비롯해 ‘최고의 패밀리카’와 ‘최고의 하이브리드차’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최고의 기업용 차량’과 ‘최고의 패

밀리 전기차’로 동시에 선정됐으며 고성능 브랜드 N의 대표적인 모델인 i20 N은 ‘최고의 해치백’ 부문을 수상했다.

유럽 브랜드 중에서 르노는 3개, BMW는 2개 부문을 수상하는 데 그쳤다.

60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자동차 전문 미디어인 카바이어는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츠, 온라인서 신차 판매...전용 모델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인 ‘메르세데스 온라인 숍’에서 인중 중고차에 이어 신차 판매도 시작했다.

11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온라인 숍은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 11개사가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중계시장) 형태로, 지난달 오픈과 함께 인중 중고차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벤츠코리아는 내년부터는 서비스 상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세데스 온라인 숍에서는 모델, 바디 타입, 색상, 옵션, 가격 등의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원하는 차량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으며 ‘지금 주문하기’ 기능을 통해 100만원의 예약금을 결제하면 차량을 즉시 예약할 수도 있다.

벤츠코리아는 온라인 신차 판매 개시를 기념해 새로운 옵션으로 구성된 모델을 온라인 숍에서만 선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모델은 일정 시간 뒤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도 판매된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온라인 숍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대모비스, ‘접는 운전대’ 폴더블 조향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필요에 따라 접어서 대시보드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폴더블 조향 시스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2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폴더블 조향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아직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현재 국내의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폴더블 조향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앞뒤로 최대 25cm까지 움직일 수 있어 운전대를 접을 경우 운전석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대를 접

은 뒤 운전석을 180도 회전해 뒷좌석 승객과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휴식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전자식 조향 장치(SBW) 기술을 시스템에 연계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시스템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BW는 운전대의 움직임에 전자신호로 변환해 바퀴로 전달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기계적 연결 장치를 제거해 노면의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진동이 핸들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http://www.kukje9.co.kr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